"예술혼 가득…보존·예찬 이구동성"

특별기획

경주남산 재조명

탑골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유희조사상 앞에서 한 노시인은 발길을 붙잡힌 채 '어찌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인가'고 탄식한다.

"어찌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인가/이 관음상을 홀로 남겨두고/이몸 다시는 이곳에 못오리/살아서 이몸 갖곤 다시는 못오리/문득 이러한 생각이 스치자/어렵쇼 이몸 봐라/이몸은 어느덧/그 관음상 차거운 돌입술에/입술을 포개었다"(박희진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유희조사상' 중)

이런 심정이 어찌 시인뿐이랴. 남산은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끝내 남산같은 삶으로 이끌고야 만다. 남산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들은 결국 남산의 아름다움을 혼자서는 감당치 못하고 예찬하고 전염시킨다. 각자가 지닌 소질과 열정을 쏟아내고야 만다. 운명마저 바뀌어진다.

연재 순서

① 총 론
② 남산은 어떤 산인가
③ 남산 훼손실태
④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⑤ 남산 이렇게 지키자
⑥ 남산으로 떠나자

◇이호신作 상선암 마애석가여래대불.

◇윤경렬

◇이근후

◇이호신

◇김구석

◇김덕수

시인·화가·사진작가 줄이어…남산사랑모임등 길안내 자청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첫번째로 윤경렬선생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원래 고향은 함경남도 주을. 30대 후반에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이라는 화두를 품고 남산 자락에 안겼다. 당시 개성박물관 관장이던 고유섭 선생의 질책을 듣고서 였다. "일본에는 뭣하러 갔어. 참된 아름다움이란 원래 있던 곳에서 싹이 터서 꽃피고 열매맺는 법이야."

그후 50년을 한결같이 남산과 함께 살았고, 어느덧 그의 깊은 눈과 바람불면 하늘거리는 하얀 머리카락은 남산의 한 부분이 되었을 정도다. 〈경주남산고적순례〉(이후 불지사에서 〈겨레의 땅 부처님 땅〉으로 보완해 출판)를 통해 일제시대 일본사람들에 의해 조사된 절터 55개를 115개로 바로잡고 40여개 골짜기마다 가득한 유물유적을 세상에 드러냈다.

남산은 예술혼의 젖줄이다. 화가와 사진작가 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박희진 시인과 화가 이호신씨는 남산시화집을 펴낼 계획이다. 한달이면 한두차례 3박4일의 일정으로 남산에 파묻힌다. 이호신씨는 "어느 때는 한곳에 앉아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빛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남산과 돌부처와 돌탑을 바라본다"며 "평생토록 그려도 남산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웃음으로 뒷말을 대신했다.

사진작가들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강운구 안장헌씨 등이 남산관련 책자의 사진을 거의 전담해왔다. 최근에 김성철씨는 남산을 사진집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석기삼씨(경주보림칼라 대표)는 남산의 옛모습을 담은 사진을 비롯 가장 많은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

김구석씨(경주사적관리사무소)는 사진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사람이다. 지난해 자비를 들여 그동안 담아온 1만컷 가운데 1백여점을 뽑아 최초의 남산사진전을 열었다. "우리 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기품있는 삶의 자세를 제공해주는 것인지 남산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것에 대한 무관심이 곧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절박한 심정이 남산에 묻히게 했나 봅니다."

지난해 '세월과 바람이 빚은 한국인'이라는 의미심장한 부제를 달아 〈돌부처〉를 펴낸 이근후교수(이화여대 신경정신과)는 석굴암이 세계 최고의 미라는 확인을 위해 10여년 넘는 석불순례에 나섰고, 지인들과 함께 한국석불문화연구원을 구성할 정도로 석불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다. 그도 남산에 이르러서야 허기진 듯 찾아나선 순례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교수는 또 남산석불지도 '경주남산'을 이재곤씨(고산자의 후예를 대표)와 함께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돌부처에 관하여 두 가지 형태의 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부처〉처럼 주관적인 느낌을 사진과 함께 실은 에세이집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돌부처에 관한 학술자료집입니다." 그의 남산순례는 좀처럼 그칠것 같지 않다.

송재중씨(신라중학교 교사). 남산 실측지도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88년 2월말 신라중학교에 발령받고 이삿짐을 꾸려 영주에서 경주로 들어설 때 석양빛이 황금색으로 빛을 뿜고 있는 남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사 산이 아니구나!' 이때 이 산이 남산인줄도 몰랐으나 처음부터 남산은 나를 반겨주었으며, 우리는 이렇게 만났다." 남산과의 첫 대면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후 6년여 동안 주말과 방학이면 남산에서 살았다. 한 유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잡목과 덩쿨이 덮힌 길없는 골짜기를 헤집고 다녀야 했다. 93년 지도를 완성 지금까지 1만부 넘게 보급하고 있다.

남산사랑모임과 신라문화원을 이끌고 있는 김덕수씨와 진병길씨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의 안내를 받아야 남산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다. 남산사랑모임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는 '남산을 알기 위한 강좌'를, 셋째주 일요일 오전 9시에는 어김없이 남산순례에 나선다. 이와함께 월명재와 충담재를 매년 봄 가을 남산에서 개최, 고승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남산의 문화를 일궈내고 있다.

신라문화원 최민희씨(계림고등학교 교사)는 일요일이면 길안내를 자청하고 나선다. "남산은 무작정 오르는 산이 아닙니다. 공부하기 위해 올라야 하는 산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길안내를 자청한다는 것이다.

경주남산을 남산이게 하는 것은 발길 닿는 곳마다 마주치는 문화유적이다. 석불과 석탑, 깨어진 기와조각, 성터….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낸 조상들의 숨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 큰 산도 아니면서 40여개의 계곡을 거느리며 결코 작은 산에 머물지 않는 신비함이 간직된 곳.

남산의 유적들은 이와함께 자연그대로의 모습과 사람의 손길이 전혀 인위적이지 않는, 조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다. 남산은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며, 아름다움의 전형을 깨닫게 해주는 산이다. 남산을 닮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경렬 '남산지키기'에 평생 | 이근후 10년 넘게 석불순례
송재중 실측지도 제작 보급 | 박희진·이호신 시화집 준비

정성운 기자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에이즈의 원인과 처방법은

문 요즈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에이즈는 성관계나 수혈에 의해 감염된다는 게 의학계의 정설인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감염경로에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 반론이란 환자의 인권보호차원인 것 같습니다. 반론이 오히려 에이즈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려 더 큰 파국을 가져오게 하지는 않을는지요.

〈김보라·서울시 노원구〉

답 나는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우려하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중요한 것은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왜 정체를 알기 힘든 질병이 계속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현대과학은 스스로의 힘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물질에만 매달리고 정신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그래서 지금의 과학은 반쪽과학입니다.

아무리 완벽해진다 해도 50%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신계 50%를 터득하지 못하고서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분야, 물리학이든 의학이든 그게 다 마음도리를 아는 심성과학이 될 때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을 다스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질병이라는게 유전성, 세균성, 영계성, 그리고 인과, 업보성에 의해 생기는데 그 이치를 안다면 물질적 처방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 하나의 몸이 아니라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사는 중생의 국토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 말씀이 중생의 병이 나아야 내 병도 낫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내 육신의 모든 중생이 보살로 화할때 나도 보살이 되고 마구니가 되면 나도 마구니일 밖에요.

따라서 내 한 생각 보살의 마음을 내면 중생들도 보살이 되어 따라줄 것이고 나쁜 생각, 독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악귀로 변해 파업을 일으킬 것입니다.

에이즈같이 전에없던 병이 생기는 것은 인간들이 전에 안하던 생각을 일으키고 문란하기 짝이없는 짓들을 새삼스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또한 물질과학이 뒷따르기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육신의 모든 생명체들, 아니 일체 생명있는 것들은 밝음을 알고 밝음을 따라 진화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문란해지고 사랑분별이 어수선해지면 그런만큼 오장육부의 파업도 강력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내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온자리에 되놓아라, 되놓으면 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성이든 업보성이든 영계성이든 세균성이든 다 나온 곳에 되놓고 맡긴다면 고여서 더러워진 물에 새 물을 가미하는 결과가 됩니다.

에이즈의 발병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도리를 외면하고서는 그 근본을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나뭇잎이 누렇게 뜨는 것을 보고 잎새만 만지는게 물질과학이라면 심성과학은 잎새가 아니라 뿌리를 밝히고 뿌리를 믿고 뿌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근치(根治)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임종시 불보살 명호부르면…

문 아무리 지중한 죄업을 지은 이라도 임종시에 열번만 부처님을 염하면 지옥고를 면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정업(定業)은 면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열번 염하는 일로 인과법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요?

〈이숙자·춘천시 효자동〉

답 인과법칙의 씨앗은 결코 썩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물고기의 머리를 세번 내리친 일로 사흘간 두통을 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정업에 대해 말씀하신 걸로 되어있지요. 그러니 임종시에 부처님을 열번 염한다고 지옥고가 면해지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걸 적어놓은 기록들을 보면서 문자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본래 나라고 규정지을 것은 아무것도 있질 않습니다. 찰나찰나에 쉬지않고 돌아가는데 업이 붙을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늘 비유삼아 말씀드리지만 누구라도 순간순간 아들이 되었다가 아버지가 되었다가 친구가 되고 형 동생이 되고 남편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때의 나를 꼭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있던가요?

그렇게 만물은 찰나찰나 고정된 모습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지요.

그러니 운명은 뭐고 팔자는 또 무엇이며 정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중생들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실상을 모르고 나다, 내것이다 하며 규정지으니까 엄연히 주고받는 도리가 있게되는 것뿐이지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십념에 지옥고를 면한다 하는데 면하고 자시고간에 지옥고 또한 본래는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가령 붙을 자리가 있다면 왜 일념은 아니고 하필이면 십념입니까? 일념만년이란 말도 있지만 한 생각에 우주삼천대천세계를 공굴리듯 굴리는 도리도 있는데 한 생각 무겁게, 진심으로 되돌린다면 일념이다 십념이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일 뿐이지요.

모쪼록 문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자유인의 도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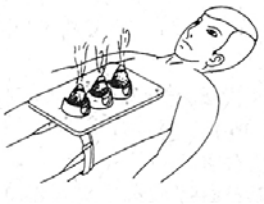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드음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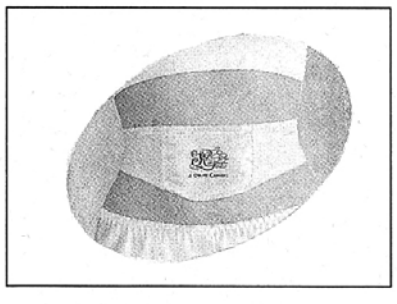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층5층)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스님)
●무심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전화: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출회
●전화 :(0335)34-9490, 39-1906
이천/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02)597-7581
서울강북지회:(02)747-7033
부산지회:(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053)323-2598
대전지회:(042)222-4936
광주지회:(062)228-8544
제주지회:(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0596)73-0039
경남마산지회:(0551)23-9016
경남울산지회:(0522)74-7536
창원지회:(0551)62-0076
제천단양지회:(0443)46-3023
의정부지회:(0351)873-0532
경주지회:(0561)772-3255
강릉:(0391)645-2117
거창지회: 0598-42-8534 광암사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